

저자 약력

레슬리 크리스티디스 Leslie Christidis

호주 시드니에 있는 호주박물관의 부관장이자 연구 및 소장품과의 수장(Head of Research and Collections)이다. 3권의 저서와 100편이 넘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조류 진화유전학(evolutionary genetics of birds)으로, 이 분야의 세계 권위자이다. 호주박물관의 부관장으로 부임한 이후, 몇 건의 문화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학예사들이 소속 박물관에 보관된 물질 문화의 정보에 접근하고 정보를 추가할 수 있도록 웹과 기타 전자식 방법을 개발하여 무형 유산을 박물관 공예품과 연결하는 혁신적 프로젝트도 그 중 하나이다.

아마레스워 갈라 Amareswar Galla

뉴델리에 있는 명문 자와할랄 네루 대학교(Jawaharlal Nehru University)를 포함해 인도 남부와 북부에서 공부하였다. 호주 브리즈번에 있는 퀸즐랜드대학교의 박물관학 교수로서 호주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문화 리더십을 가르치고 있다. 국제박물관협의회 교차문화 태스크포스(ICOM Cross Cultural Task Force)의 의장이다. 유네스코를 비롯한 몇몇 단체와 협력관계에 있는 인류발전의 문화적 다양성을 위한 아태관측소의 창립 위원장이다. 출중한 연구개발 실적을 가진 그는 지난 30년간 50개 이상의 국가에서 학술회의, 전문가 회의, 커뮤니티 회의 때 기조연설을 하였고, 아시아, 아프리카 및 호주에서 ‘fingers in the dirt’ 커뮤니티 박물관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캐서린 켈리 Catherine Kellyl

런던에 위치한 그린위치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유산, 미술 및 여행 분야를 강의하는 수석 강사이다. MA 프로그램 유산 관리, 박물관 관리, 문화 여행 관리(MA programmes Heritage Management, Museum Management and Cultural Tourism Management)의 프로그램 리더이다. 유산 관리, 문화적 정체성 및 표현의 정치, 여행-유산 상호관계, 박물관학, 전체론적/건강 여행, 지속 가능한 시골 커뮤니티 개발에 연구 관심이 많다.

김현정 Kim Hyeonjeong

동덕여자대학교의 외국어학과 강사인 김현정은 일본 쓰쿠바대학교(University of Tsukuba) 인문사회과학 대학원(Graduate Schoo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연구관심 분야는 현대사회에서 지역정체성의 형성과 발달, 민속의 현대 해석, 무형유산 분야의 정책결과 그것이 관련자들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제스마엘 마타가 Jesmael Mataga

남아프리카의 박물관 분야에 경험이 있는 연구원이자 학생이다. 1999년부터 짐바브웨의 국립 박물관 및 기념관에서 민족지학 학예사로서 일하였고, 현재는 짐바브웨 인간과학 박물관(Zimbabwe Museum of Human Sciences)에서 학예사로 활동한다. 짐바브웨대학교에서 공부하였고, 현재는 국립 레소토대학교(National University of Lesotho)에서 문화 및 유산학(Cultural and Heritage Studies) 분야를 강의하고 있다. 무형유산 보호, 박물관과 커뮤니티, 탈식민지 후 아프리카의 유산관리 정책에 연구관심이 많다.

폴 모나건 Paul Monaghan

시드니 호주박물관의 무형유산을 관리한다. 박물관 소장품 연구, 원주권(Native Title) 연구, 언어 및 문화 부활 프로젝트를 비롯한 다양한 맥락에서 언어학자이자 인류학자로서 활동하였다. 현재, 호주박물관에서 호주 본토와 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이중 초점으로 소장품 기반의 연구 및 디지털 접근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다.

라우라 솔라니아 Laura Solanilla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위치한 카탈로니아 개방대학교(Open University of Catalonia)에서 강의하고, 인류학과의 문화 및 유산 관리 분야(Cultural and Heritage Management Area of its Humanities Studies)를 조정한다. 공공 행정의 문화 관리 및 유산 분야에 오랜 경력이 있다. 라우라 솔라니아의 연구는 정보통신기술과 문화유산 기관을 통해 기억과 집단 정체성(Memory and Collective Identity)을 연구하고 박물관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해 무형 유산을 관리하는 프로젝트에 중점을 둔다.

툼 G 스벤손 Tom G. Svensson

1914년에 스톡홀름에서 태어났고, 1973년에 스톡홀름대학교에서 박사학위(Ph. D)를 받았다. 1970년부터 오슬로대학교 인류학박물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처음에 학예사로 출발하였다가 수석 학예사가 되었고 현재는 교수로 재직 중이다. 북반구 고유의 문제, 특히 인종정치(ethno-politics), 법 인류학(legal anthropology), 및 다양한 미학적 문제에 관심이 많다. 국제 저널에 다수의 논문과 발표하였고, 국제 서적을 다수 집필하였다. 대표적으로 3권을 든다면 Ethnicity and Mobilization in Sami Politics (1976), Asa Kitok och hennes dottrar (1985), The Sami and Their Land (1997)가 있다.

캐롤라인 윌크스 Caroline Wilks

영국 런던의 그린위치대학교에서 유산관리 분야의 석사학위를 받았다. 샤톳빌 주빌리 트러스트(Charlotteville Jubilee Trust)의 유산교육담당관(Heritage and Education Officer)으로 재직 중인데, 이 단체는 에드워드왕 시대 구호민 건물(casuals’ ward)을 유산 및 커뮤니티 센터로 복원, 개장하기 위해 2002년에 설립된 독립 자선단체이다.